'찐'불자의 가피 경험담

욕심에서 비롯된 아들과의 갈등 참회기도로 극복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나는 젊은 정치인의 인터뷰와 그가 쓴 책에 대한 뉴스를 접했다. 궁금한 마음에 책을 구입했고 밤을 새워 읽었다. 유명 배우의 아들이 쓴 자서전이었는데 중학교 시절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나 하버드대에 입학하고, 학과장상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책을 읽으며 '그래,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딸은 이미 대학생이었고, 중학생인 아들의 교육에 온 신경을 쏟고 있던 시기였다. 그렇게 나는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들에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별다른 반대는 없었다. 남편도 찬성했다. 아들이 머물 홈스테이 가정을 소개받아 남편, 아들과 함께 셋이서 미국으로 향했다.

시애틀 근교 도시에 위치한 그 집은 부인이 한국인, 남편이 미국인이었고 아들 또래 자녀도 있었다. 나는 남편과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홈스테이 가정에 아들을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잘 적응해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하버드대에 입학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꿈과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아들과 우리 가족에게는 시련이 닥쳐왔다.

낮에는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아들 생각을 잊곤 했지만, 퇴근길 석양을 보면 차 안에서 몰래 울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영상통화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약 6개월 후, 미국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이 왔다. 홈스테이 가정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영어도 못하는 바보"라며 자주 놀렸고,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이었다.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 빨리 와달라고 했다.

다음 날 곧장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다. 아들을 보니 그간 겪은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아들은 "엄마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할 정도로 격하게 반발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욕심으로 아들과 가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웠다. 남편과 상의 끝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기러기 가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곧장 아파트를 얻어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돌보기 시작했다. 한숨 돌린 줄 알았지만,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친구도 거의 없었고,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공부보다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말려도 듣지 않기에 "게임 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호되게 야단쳤다. 그러자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다. 밤이 되면 오겠지 했지만,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온갖 걱정이 몰려왔다.

극심한 불안 속에 나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인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어디라도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다행히 한 분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미사'라는 한국 절이 있다고 알려줬다. 아들을 당장 찾을 수는 없어도, 마음 붙들 곳이 절실했다. 곧장 찾아간 절에는 노스님이 혼자 계셨다. 사정을 말씀드리자 스님은 직접 점심 공양을 준비해주시고 "걱정 말라. 아이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다독여 줬다.

그때까지 나는 절에 가본 적도 없었다. 회사 운영으로 바빠 일요일 하루 쉬는 것도 벅찼기에, 종교는 늘 먼 이야기였다. 불교가 공부하고 기도하는 종교라는 사실도, 그날 비로소 알게 됐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눈물로 108배 참회기도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아들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염불과 기도로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렸다. 하루도 빠짐없이 〈법화경〉을 읽었고 금강경도 사경했다. 한쪽은 한문으로, 다른 한쪽은 영어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며 간절하게 마음을 모았다. 그러자 허공을 떠다니듯 혼란스럽던 몸과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차츰 정신도 맑아졌다

그렇게 거의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데려온 듯 아들이 조용히 돌아왔다. 얼굴은 제대로 먹지 못해 반쪽이 돼 있었지만, 무탈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그간 시골 농가의 창고에서 몰래 지냈다고 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 인연으로 나는 부처님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다. 경전을 배우고, 사경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불자의 길에서 전법에 앞장서는 국제포교사가 됐고, 선명상으로 국민에 평안을 전하는 '선명상 지도자'로도 활동 중이다. 아들은 유명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다.

시련과 고통 속에 불법을 만난 것은 내게 가장 큰 복이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깊이 느끼며,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불보살님께 항상 감사하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부처님 말씀 사경하며 세상 나아갈 용기 되찾아

어릴 적, 불자이신 조부모님의 손에 자라며 불교 유치원을 다녔다. 그러나 종교적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았던 청소년기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교회도 다녀봤다. 하느님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 또래와 함께하는 소속감이 필요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불교'가 나의 삶에 일부가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은 가세의 몰락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나를 길러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황하던 나는 우연히 절을 찾았다. 불교학교 청소년법회에서 지도법사 스님과 선생님, 친구들에게 의지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가정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방과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대학 진학을 고민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루빨리 취업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비교적 학비가 덜 들어가는 전문대 위주로 입시를 준비했다.

며칠 후 청소년법회 스님이 선생님을 통해 나의 상황을 알게 됐는지, 꿈과 진로를 물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부에 진학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원하는 곳에서 일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라는 밝은 미래도 들려줬다. 그렇게 수시 면접을 준비해 경주 동국대 불교학부로 진학하게 됐다.

대학 진학 후에는 학업 성적보다 직접 발로 뛰는 쪽을 선택했다. 그때 나에게 불교는 곧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불교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참여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계사 청년회, 조계사 대학생부 임원, 불교동아리 회장, 사찰 아르바이트까지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쉼 없이 뛰었다. 불교는 나에게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요소였다.

돌아보면 이 과정이 단지 장학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불교를 향한 신심이 있었기에 이만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재학 중 도반들과 함께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포교하고, 진심으로 불교에 임한 덕분에 졸업 후에 좋은 불교계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었다. 나를 아는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액셀을 밟듯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도 결국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마치 호법신장님들이 열어주신 활로처럼 탄탄대로를 달리던 나는, 갑작스레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모든 불교 활동을 멈췄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신행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도 연락이 하나 둘 끊겼다.

'생존'이라는 절박함으로 달려온 불교의 길에서 도반들과 멀어진 후, 내게 남은 건 오직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뿐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발로 뛰는 불교'가 아니라 '수행하는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는 달릴 만큼 달렸으니, 걸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절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108배를 하자니 몸이 무거웠다. 법문을 들어도 금세 졸음이 쏟아졌다.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집을 정리하던 도중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집이 눈에 띄었다. 청소를 마친 후 따로 빼두었던 사경집을 펼쳐봤다.

한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삐뚤빼뚤 따라 쓰는 글씨였지만, 한 장 한 장 채워갈수록 묘한 뿌듯함이 생겼다. 글자 아래엔 우리말 번역이 있어, 비로소 금강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고, 법회 중 독경도 해봤지만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다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전은 없던 나였다.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사경 수행에 돌입했다. 처음엔 〈금강경〉으로 시작해 백중 기간에는 〈부모은중경〉을, 마음이 힘들 땐 〈광명진언〉을 사경했다. 한 권씩 끝낼 때마다 내 삶도 조금씩 변화했다.

사경에 앞서 늘 외우던 발원문은 내가 다시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주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했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그 시기를 지나 다시 만난 사람들은 내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삶의 원동력이 뭐야?"라고 묻곤 했다. 나는 씩 웃으면서 "부처님 덕분이죠"라고 답한다.

빠르게 철들어야 했던 그 시절, 불교는 나를 어긋나지 않게 지켜준 빛이었다. 불교에서 만난 인연들이 나를 이끌었고,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회향하며 살아가야 할 시기다. 지금 이렇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살아가게 해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힘. 어쩌면 그것은 사경을 통해 한 글자 한 글자 차곡차곡 쌓아온 마음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쌓인 정성이 진정한 '가피' 아닐까.



오윤겸 불자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거제 신광사
주지 선안
신도회 일동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랑2길 108
신광사 수목장 상담문의 : 1855-0494, 010-2094-0580

경남고성군불교사암연합회
직전회장 이암스님 (문수암)
회 장 수운스님 (약수암)
부회장 원명스님 (청련암)
재 무 선우스님 (고불사)
감사 월암스님 (운흥사) 총무 진각스님 (청수암)